



10장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생애

제 10 장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생애

9장의 증언처럼 옛 언약 아래서의 절망은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새 언약 아래서의 희망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데에 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한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 능히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영원히 완전하게 하신다. 그가 우리를 죄 없이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를 인하여 새 언약의 중보” (9:15)자라고 부른다. 이 말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만일 양심이 온전하게 되고(9:9), 양심이 깨끗하게(9:14) 되는 진리를 부인하면 우리의 중보자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 분이 “죄를 없게 하시고” (9:26),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9:28)는 사실을 거절하는 사람은 중보자를 거절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9장의 명료한 결론들을 가지고 10장의 연구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 10장의 중심 내용을 보자! 10장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옛 언약 아래서는 율법도,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도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는 이미 “한 몸을 예비” (5)하셨고,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 (10)과 “영원히 온전케” (14) 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구주의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 40:8)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 하나님이지여, 주의 법이 나의 마음에 있고 나의 생각에 기록 되었나이다” 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는 우리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갖게 한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마음은 “참 마음” 이요 “온전한 믿음” (10:22)이다. 이러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은 우리로 재림의 그날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 A. 히 10:1~4, 율법 아래 있는 해마다의 봉사는 온전하게 못함
- B. 히 10:5~18,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봉사는 온전하게 하심
- C. 히 10:19~22,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
- D. 히 10:23~39, 실천적 신앙과 대적하는 자에 대한 심판

A. 율법 아래 있는 해마다의 봉사는 온전하게 못함(10:1~4)

1.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나 대속죄일 봉사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참 형상만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율법(그림자)과 참 형상(원형)의 능력]

그림자는 율법과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레 16장의 대속죄일 봉사)를 말한다.

① 그림자는 - 온전하게 할 수 없다(7:11, 19).

② 참 형상은 -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한 제물로 . . . 거룩 . . . 온전” (10:14)하게 하신다.

2.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율법이나 해마다의 봉사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① 섬기는 자들을 단번에 정결하게(완전하게) 한다.

② 죄들에 대한 의식(consciousness of sin; feeling of guilt, KJV)이 없어진다. = 죄와 상관없는 마음을 갖게 된다.

③ 제물을 바치는 일(해마다 드리는)이 중단 된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해 우리를 단번에 정결하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이루게 하신다.

3.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율법이나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그림자로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만 죄를 없이 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대속죄일에 드러지는 ‘황소나 염소’ (레 16:18 참고)의 피도 역시 죄를 없애는(웁기는) 능력이 없다. 대속죄일의 실체로서 죄를 율하고 제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B.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봉사로 온전하게 하심(10:5~18) (메시아의 삶과 새 언약 아래 있는 신자들의 삶의 동질성)

5.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세상에 임하실 때 - 구주께서 성육신 하시는 때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 대신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셨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가 70인역(LXX)에서는 “나를 위하여 귀를 통하여 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다. 이 구절은 안식년에 종의 귀를 뚫은 관습을 말하는 것이다. 이 해는 종이 손뿌아 기다려온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해였다. 그러나 종이 주인이 준 아내와 장가들어 자녀를 거느리게 된 경우라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단신으로 나가야 했다. 그 종이 가족과 헤어지지 않고 처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평생 그 주인의 종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면 그 증거로 귀를 뚫어야 했다. 주인은 재판관에게 데리고 가서 종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뚫었다. 이것은 종이 영원히 주인을 섬기겠다는 서약의 증거가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종의 종’ 이 되신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의 모형이다.

6.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서인 시편에서 가져온 것이다. “전체로 번제함” 은 전체를 태워 드리는 전번제(全燔祭)를 가리키는 말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시 40:6). 구약의 희생제사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 불가피하게 선택되어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짐승의 희생 자체를 기뻐하신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 하는 삶을 요구하셨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 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6~8)

하나님은 위선과 가식을 미워하심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암 5:21-24)

7.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시편 40편 7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구약의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와 예물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시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도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8.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였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성소봉사를 제정하려고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는 시편의 두 절을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 40:7-8).

예수께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께서는 두루마리 성경을 통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희생제물 대신에 자신의 희생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요구를 깨달으신 후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셨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시고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셨다.

예수님은 의문의 율법뿐만 아니라 도덕법도 모두 순종하셨다. 흠 없는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야 하셨다.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새로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통한, 인간의 모든 시험을 통과한 완전한 희생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아버지의 모든 요구를 이루심으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10.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 ① 번제와 속죄제물 대신에 아들을 받으시는 것

- ② 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두고 생애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완성)이 되시는 것
- ③ 흠 없는 제물로 단번에(단 한 번) 받으셔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10, 14), 온전하게 하시고(1), 정결하게 하시고(2), 죄를 끝나게 하시는 것(2)

1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 직이 죄를 제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 ① 율법이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이 문제였다.
- ② 제사장 자신의 약점으로 인하여 항상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 ③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희생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속죄를 이룰 수가 없다.

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

13.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하나님 우편 - 그리스도가 가장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신 것을 말한다. 그는 왕과 제사장의 자격으로 앉아 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로서 앉아 계신다.

그가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유는 여자의 후손이 죄의 세력을 이기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¹²⁵⁾ 도우시기 위함이며, 또한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인하여 사단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시 110:1)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돌 때까지 불가불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전 15:24~26)

기다리시나니 -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죄가 끝나기를 기다리시고, 사단의 통치가 끝나기를 기다리신다.

14.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지만 원형이신 그리스도의 몸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

여기에 한 제물은 ‘하나의 제물’ (“한 번의 제사로서” , 킹제임스)이라는 의미이며 “거룩하게 된” 이라는 문맥은 ‘거룩하게 되고 있는’ (헬라어 ‘하기아조메누스’ 는 동사 ‘하기아조’ 의 수동태 현재 분사)의 뜻이 된다. 속죄제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간주된다.

15.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 하시되”

16.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 날 후로는 - 참 희생제물과 그 피로 언약이 비준된 이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다. 이것을 새

125) 설교와 강연 2권(Ellen G. White, Sermons and Talks, Vol. 2), p. 192.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법이 놓이는 곳이 성전이다. 우리의 ‘마음’ (heart, 심장, 욕망), ‘생각’ (mind, 깊은 사고, 이해) 안에 법이 놓이고 그 자체에 법이 기록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 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아들인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한다. 그분의 순종은 우리를 위하여 가납된다. 이리하여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할 것이다.”¹²⁶⁾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 이니라” (롬 5:1, 3:31, 8:3, 4).”¹²⁷⁾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관하여 예언한 것이다(렘 31:33). 이 예언은 그리스도의 생애로 먼저 성취되고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비준하셨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 40:8). 그리스도는 자신께서 이루신 흠 없는 생애와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심중에 두시고

126) 복음주석 (Ellen G. White, Bible Commentary), 레 18:5.

127) 부조와 선지자(Ellen G. White, Patriarchs and Prophets), p. 372.

즐거 순종하신 길을 우리도 걷도록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에게 재현시켜 주시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분의 선물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의 생애의 특징을 이룬 열렬하고 꾸준한 활동성은 저들의 생애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재현이어야만 한다.” 128)

“그리스도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력을 가지고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재현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늘에서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 다(골 2:10)는 말이 들려질 것이다.” 129)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바라마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재현될 때에는 그는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130)

17.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시(헬, 우매) - ‘결코 ~ 하지 않다’ 는 뜻으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결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이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사 43:25). 죄의 도말은 새 언약의 성취를 나타낸다.

“그리하여 새 언약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렘 31:34), “그날 그 때에

128) 가려 뽑은 기별 1권(Ellen G. White, Selected Messages, Vol. 1), p. 105.

129) 증언보감 2권(Ellen G. White, Testimony Treasures, Vol. 2), p. 433.

130) 마지막 날 사건들(Ellen G. White, Last Day Events), p. 39.

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렘 50:20).”¹³¹⁾

“새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그런데 마치 모형적 지상 성소의 정결이 그것을 더럽혀 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¹³²⁾

* 환난의 때에 죄의 도말을 받은 자는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축복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있는 동안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도말되었다. 그들은 그 죄들을 다시 생각해 낼 수 없다.”¹³³⁾

18.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죄들, 불법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와 관련하여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본문에서의 용서의 의미는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면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10:2)라는 말씀과 같다.

131) 각 시대의 대쟁투(Ellen G. White, *Great Controversy between Christ and Satan*), p. 484.

132) 상계서, p. 421.

133) 상계서, p. 620.

C.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10:19~22)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값없이 하나님 앞에 가납될 수 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9:14)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10:10) 하고, ‘죄를 끝내게’ 하고, ‘완전하게’ (10:14) 하는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 피의 효력을 받은 자는 각 사람에게 배풀어 주는 은혜의 보좌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 “성소”에 해당하는 헬라어 ‘톤 하기온’ (ton hagion)이 새국제역, 킹제임스역에는 ‘지성소’로 번역되어 있다.

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 길 -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열어 놓으신 길이다. 자신의 몸의 찢김을 통해(마 27:51; 막 15:38) 열어 놓으신 길이다. 성소의 휘장을 걷기 위해 자신의 생명으로 인류의 죄 값을 지불하시고, 온 인류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 놓으셨다. 우리가 할 일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것뿐이다. 그 길은 우리를 성소로 인도한다.

“-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 모든 인간과 같은 사람이 되셨으며 모든 인간이 있는 곳에 계셨다. 그리하여 일생에 걸쳐 모든 파란곡절을 다 경험하고 심지어는 사망과 무덤을 통과하셔서 온 인류가 있는 곳으로부터 가장 거룩한 곳인 하나님

의 오른편에까지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열어 놓으셨다. 오, 그 거룩한 길! 이 길을 열어 놓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고 기도와 눈물을 흘리셨으며 거룩한 생애를 살고 희생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후 승리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을 하셨으며 개선장군과 같이 가장 거룩한 하늘에 들어 가셔서 하늘 왕의 보좌의 우편에 지금 계시는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이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 중의 하나가 되셨으므로 이 길은 우리의 길이 되었으며 우리의 것이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천부의 권리를 부여하셨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몸소 육신 - 우리의 육신 - 을 쓰고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능케 하셨으며 실제로 보증을 하셨다. 누구나 이 길로 지성소에 자유스럽고도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 중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성을 쓰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하셨으며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을 쓰시고 이 세상에서 일생을 세상의 죄짐을 지셨지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생애를 사셨으며 "하늘보다 높이 되"셔서 승천하셨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가 평생을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있는 생애" 를 살 수 있으며 또 그 결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보다 높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열어 놓으셨다.

온전함, 곧 품성의 완성은 그리스도인의 목표이며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이르는 온전함이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그리하여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열어 놓으셨다.” 134)

21.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134) A. T. 존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A. T. Jones, *The Consecrated Way to Christian Perfection*), pp. 82-83

하나님의 집 - 아주 정겨운 표현이다. 우리 집이라는 의미이다. 예수님께서 만형님이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에 갈 수 있는 집이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량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3:6)고 하신 집이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 (5:8-9)신 상태로 하늘에 가셨다.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되신 후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참 성소에서 행하시는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셨다. 온전함은 그리스도인의 목표이다. 참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봉사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서 이러한 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성소에 있나이다" (시 77:13).”¹³⁵⁾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는 4가지 방법]

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 ① 피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은 마음 - 피를 뿌림으로 악함을 버리고 깨끗하게 된 마음으로 중생의 경험, 침례의 경험을 의미한다.
- ② 맑은 물로 씻은 몸 - 침례의 경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딤후 3:5)을 말한다.
- ③ 참 마음 -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온전한 마음(perfect heart), 선한 것이 충만한 마음을 의미한다.
- ④ 온전한 믿음 - 전적인 확신이 있는 믿음, 차고 넘치는 믿음, 불신

135) 상계서. p. 83.

이나 꺼리는 태도가 없는 믿음, 확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의미한다.

나아가자(헬, 프로스에르코마이) - 문맥상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면전 바로 앞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는 4가지 방법]으로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자.

바울의 선한 동기를 유발시키는 호소어 “하자” (Let us) - 하나님께 나아가자(10:22),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10:23), 서로 돌아보자(10:24), 서로 권하자(10:25)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 곧 모든 부정으로부터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하지 않고 이 사업과 조화되지 않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와 또 이 시대를 위한 진리와 사업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람과 짝하고 있는 것이다.”¹³⁶⁾

D. 실천적 신앙과 대적하는 자에 대한 심판(10:23~39)

23.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약속하신 이 - 히브리서에 나타난 약속은 확고하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4:1),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 존귀와 영광을 회복하는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6:17), 더 좋은 약속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새 언약의 증보(8:6) 등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도리의 소망’ 을 요동함 없이

136) 리뷰 앤드 헤랄드(Ellen G. White, The Review and Herald), 1890. 1. 21.

굳게 붙들게 한다.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늘의 소망을 얻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고 예수께서 칭찬 하셨던 로마 백부장의 믿음의 근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것을 실천하는 마음에 있었다. 그는 종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주께 탄원 하였다. 이와 같이 형제를 “말과 혀로만” 이 아닌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 는(요일 3:18) 사람만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온전한 사랑을 이룬 사람일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의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진리인 지성소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안다는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다. 타인의 복리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애쓰는 마음이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과 비례해야 한다. 서로 돌아보고, 힘든 것은 서로 나눠져야 한다. 가난 중에도 선행을 격려하고, 궁핍한 중에도 주의 사업에 협력하라는 것이 성령의 분부 이시다.

지금은 세속화로 인하여 모이는 습관들이 점점 없어져 간다. 공중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 그러나 서로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길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강력한 방법이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 끝의 멸망을 상징한다. 핍박의 구름이 몰려올 때 함께 모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세상과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것이나, 핍박이 두려워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26.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짐짓 죄를 범한즉 - 알고도 지은 죄, 고의적인 죄를 말한다. 고의적인 죄는 양심을 마비시키고 성령의 음성을 침묵시킨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하여 옛 언약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 빛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유대적인 관습과 전통에 얽매어 진리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될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하늘 성소 진리의 빛을 받고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짐짓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만일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한다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게 될 것이다.

소멸할 맹렬한 불 -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병이 들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든지, 세상의 쾌락 가운데 있든지, 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죄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두려움은 성령의 음성에 대적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품기 때문에 이르러 온다. 성경은 대적하는 자를 불에 태워 소멸한다고 말하고 있다.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태워 소멸되는 존재이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12:9)이시다.

예를 들어보자!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은 아론의 제사장직을 탐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었다.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향로를 들고 분향할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고라와 함께한 족장들 250인은 모두

불에 소멸되고 말았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악인들에 대한 영원한 불의 심판이 있다. 심지어 사망과 음부도 불에 소멸되고 없어진다. 영원히 타는 지옥도 없어지고 영혼도 태워 없어진다(사 26:11; 계 20:11-15).

28.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 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겔 20:11) 생명의 법이었지만 공공연하게 반역하는 자들은 두 세 증인을 세우고 공의의 돌로 쳐 죽였었다. 그러한 죄의 실례들로는 하나님을 훼방함(레 24:13~17), 우상숭배(신 17:2~7), 위증죄(신 19:15~21), 간음죄(신 22:22~30), 고의로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신 17:2~7) 등이 있었다.

29.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고의적인 죄, 새 언약을 어긴 사람들에게 대한 형벌은 너무나 중할 것이다. 율법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죄보다 광명한 빛줄기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한 죄는 더욱 크다. “언약의 피”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유언한 자가 죽어 피로 비준하여야 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큰 희생을 치루고 제공된 피를 더럽힌 자는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는가? 피할 수 없는 두려운 형벌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될 때 이스라엘은 율법의 영광을 보고도 두려워 떨었다. 하물며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발해질 때 그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의 죄는 더욱더 크다.” 137) 모세는 만일 이스라엘이 범죄 하여 언약을 배반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 보다 벌이 7배나 크다고 경고하였다(레 26:15-18).

30.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3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다(9:14). 반면에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엄숙하고 두려운 심판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느낄 때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10:29).

“은혜의 시기가 마치고 전에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에는 자비가 섞여 있었다. 그리스도의 증보의 피가 죄인이 범한 죄의 분량대로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진다.” 138)

137) 부조와 선지자(Ellen G. White, Patriarchs and Prophets), p. 583.

138) 각 시대의 대쟁투(Ellen G. White, Great Controversy between Christ and

[담대함과 믿음으로 살라(10:32~39)]

32.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초대교회는 빛을 받은 후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고난의 큰 싸움에 직면하였지만 계속 전진하였다. 이교로마는 그들의 복음의 진전을 막기 위해 크게 핍박하였지만 그들은 이에 맞서 “믿음의 선한 싸움” (딤후전 6:12)을 계속하였다. “싸움” (헬, 아틀레시스)이라는 단어는 초대교회에서는 ‘순교’를 뜻했다. 이 말에서 영어의 ‘육상’ (athletics)이라는 말이 나왔다.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

33. “혹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들은 정식으로 ‘압박’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생계의 방도를 잃어버리는 환난과 사회적 압제들을 받았다. 많은 사람이 붙잡혀 원형 경기장의 오락거리가 되어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씌움을 당한 채 사자에게 던져졌다.

옥에 갇히거나 비난과 조롱받는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은 많은 용기와 결단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명성과 안전을 돌아보기 보다는 의를 지지하고 함께 고통 받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였다.

초대교회의 핍박에 관하여 다음을 기록을 참고하라.

“이교는 그리스도교를 박멸하고자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박해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내어 쫓겼다.

Satan), p. 628.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에 참” 고,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 (히 10:32, 11:36)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써 인쳤다. 빈부와 귀천과 학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바울이 순교당한 당시의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박해는 그 정도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마는, 그 후 몇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무서운 죄목으로 거짓 고소를 받았고 기근, 질병, 지진 등의 재난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원망을 들었다. 그들이 일반 사회의 미움과 의심의 대상이 되자 밀고자들은 이(利)를 얻기 위하여 무죄한 사람들을 무고(誣告)하였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 종교의 적,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로 정죄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거나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투기장(鬪技場)에 던져짐으로 개에게 찢겨 죽은 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처형은 축제 때 자주 오락거리로 삼아졌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매우 즐거워하였고, 그들의 죽음의 고통을 보고 크게 웃고 손뼉 치며 기뻐하였다.”¹³⁹⁾

34.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아라”

35.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마지막 마무리 쟁투에 있을 전쟁에서 이 장렬한 일이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위하여 도시와 마을로부터 도망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할 것이다. … 그대는 감당할 만한 시험 그 이상의 시험을 당하지

139) 상계서, pp. 39-40.

않을 것이다. 주께서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의 것이라도 담당하셨다.”¹⁴⁰⁾

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환난의 때가 가까울수록 가장 필요되는 하는 덕목이 “인내”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12).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 10:22).

37.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은 아주 짧은 시간, 극히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 “오실 이”는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분을 의미 한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메시아의 대명사였다(마 11:3; 눅 7:19; 단 7:13; 말 3:3). 우리 주님은 꼭!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38.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신앙을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운 두려운 환난의 때가 곧 이르러올 것이다.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라고 속삭일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였다가 사단에

140) 가려 뽑은 기별 3권(Ellen G. White, Selected Messages, Vol.3), p. 397.

게 단호하게 외쳐야 한다. “나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전쟁터에서 총탄이 아무리 빗발치듯 날아와도 전사는 앞으로 전진 하는 법이다. 믿음의 싸움에는 후퇴가 없고 오직 전진만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누가 진리를 옹호하는가를 보고 기웃거리며 머뭇거리느라 앞으로 전진 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곧 뒤로 물러나 침륜(멸망)에 빠질 위험이 있다. 지금 우리가 주춤거리며 물러나는 한 걸음이 우리를 영원히 침륜(멸망)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 매일 전진하여 나 자신의 영혼과 내 주위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